



김대연
고양낙우회장

생산현장에서의 조사료 실태

전국에 노는 땅없이 국토를 이용하여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농가와 국가가 합심하여 노력한다면
조사료 구입에 외화를 낭비하지 않게되고
생산비절감으로 경쟁력을 갖추게 되어 시장개방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낙농육우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농가에는 각종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여 경영 합리화를 이루는데 그 사명을 다하고 계시는 낙농육우협회 직원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생산 현장에서 조사료의 현 실태를 평소애 보고 느낀대로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저는 글을 쓰기보다는 낫과 괄이 더 손에 익은 농부로서 연필을 들고 나의 생각을 옮겨 쓰다보니 표현이 많이 서툴고 어색하니 읽는 분들의 많은 이해를 바랍니다.

과거 우리 농촌에 부업내지는 소규모로 목장을 시작할때는 등짐으로 풀을 베어다 먹였으며, 1970년대 초부터 목장의 규모가 조금씩 커지면서 마차나 경운기를 이용하여 풀을 베어다 먹였으며 이곳 고양지역을 보아도 경운기를 끌고 행주대교를 지나 김포까지 가서 풀을 베어오는 극성을 부렸다.

겨울철을 대비해서는 산에서 풀을 베어 건조도 만들고 밭에는 적으나마 옥수수를 심어 엔실리지를 담가두곤 하였다. 오직 소만을 최우

선으로하는 억척스럽게 우직하게 일하던 시절이었다. 특히 도시근교에서는 적은 경지면적에 목장경영을 하다보니 조사료를 재배할 수 있는 밭은 줄어들고, 경지정리다 하천 정비다하여 풀을 벨수 있는 면적은 줄고 하천부지는 생활쓰레기등으로 많이 오염되어 있고 목장의 규모는 커지고 인건비는 높으니 전에처럼 하천둑의 풀을 베어서는 소에게 고루 먹일수도 없는 실정이다.

특히 농후사료의 모든 원료를 외화를 들여 사오면서 이제는 조사료인 각종건초까지 그 아까운 외화를 주고 사오는 것이 안타깝다. 국내에서 생산하여 이용가능한 조사료까지 왜 외국에서 구입을 해야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농민들이 사기를 잃고 언제라도 기회가 있으면 목장을 그만두겠다는 패배감이다. 축산은 일요일은 물론 명절까지도 쉬기 못하고 일년내내 일을 해야하는 고된직업이라 요즘의 상태로는 사료값에 시달리고 연일 하락되는 소값으로 재산가치는 줄고 자신은 어려운 직업을 가지고 있으나 자식에게는 이 고생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므로 조사료기반이 취약해질 수 밖에 없다.

둘째는, 인건비 상승으로 목장에 일손이 부족한 것이다. 높은 임금을 주면서 목장경영을 할수 없는 실정이고 더욱이 조사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높은 임금을 주고 사람을 고용할수는 더더욱 없는 것이다.

이상의 문제로 어려운 소사육농가를 위하여 정부의 대책을 촉구해 본다. 우선 소는 곡류위주의 사육이 불가피한 돼지와 닭과는 달리 풀만으로도 사육이 가능하므로 사료포를 만들기 위한 국가적 지원이 절실한 것이다.

물론 계산상으로는 논300평에서 50만원정도의 조수익이 있고 같은 면적에 옥수수를 심었을때는 8ton 정도가 수확되고 싸일레지를 했을 경우는 56만원정도의 조수익과 후작이 가능하므로 계산상으로는 수도작보다 더 수익이 많은 편이나 눈에 옥수수를 심자고 주장할수는 없는 것이고 활용가능한 토지를 최대한 이용하여야 할것이다.

70년대에 우리실정에 맞지않는 초지조성을 한다고 예산을 낭비했던 과오를 다시 범하지 말고 현재

그냥 방치된 초지증 사료포로 전용이 가능하면 과감히 전용하고 경지정리를 필요로 하는 곳이 발이라도 과감히 지원하여 경지정리를 하여 주고 수도답에 사료작물을 이모작할 수 있도록 적극지원하여 생산의 욕을 고취시켜야 할 것이다.

인건비의 상승으로 인력을 위한 조사료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나만

큼 조사료생산을 지원할수 있는 기계화 지원, 국유지를 지역별로 협업식의 공동 사료포로 활용하는 방안도, 한국의 기후후에 맞는 품종 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등의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전국에 노는 땅없이 국토를 이용하여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농가와 국가가 합심하여 노력한다면

조사료 구입에 외화를 낭비하지 않게되고 생산비절감으로 경쟁력을 갖추게 되어 시장개방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묵묵히 자기의 직업에 충실한 축산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정책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이 글을 올립니다. ☺



유 동 희
공근낙우회장

원활한 조사료 확보의 어려움이 많다

시기적으로 조사료 사정이 제일 안좋은

8~9월 벼짚도 증분치 못하고 사일리지도 떨어지고

수입견조도 구입할 수 없고 그러니 농후사료급여 비율이 높아진다.

그렇잖아도 무더위에 지친 우군들에게 스트레스를

더해 주는 것 같이 미안함을 느낀다.

소 사육에 있어 조사료 중요성은 두말할나위도 없음을 알면서도 무더위와 장마철인 요즘은 농후사료 의존도율이 높다.

3ha에 청예 옥수수를 재배해 96. 8. 30일에 사일레지를 담아 11월달부터 1일 급여량 두당 13kg 평균 20두 착유우에만 급여했는데 도 올 7월말에 떨어졌다.

20일정도 있으면 낙농가들의 연중행사 중 제일 큰 일인 사일레지를 담고야 되는데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날씨는 무덥고 힘든 일이라 이웃 사람들의 신세를 또 져야 한다는 부담감!

다행히 94년도에 조사료 기계화 단지로 선정돼 인력도 적게들고 카터기에 절단할때보다 하베스터는

더 잘게 분쇄해주니 사일레지 품질도 좋아지고 단지회원 다섯 낙농가들이 함께 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업을 하니 남의일 같지않고 회원들간에 유대관계도 친숙해지므로 기계화단지 조성에 선정해 주신 관계기관에 고마움을 느낀다.

8월말경에서 9월초사이 사일레지가 끝나면 유채, 연맥을 서둘러 파종하기 위해 몸과 마음이 분주하고 조급하다. 축사와 인접해 있는 밭 2ha에 유채, 연맥이 푸른물결치는 10월이면 간이 목책선치고 소들을 내보내기 때문이다.

넓은 초원에 덩치큰 우군들이 전기선이 무서워서 일렬로 늘어서서 채식 하는 것을 보노라면 낙농을 하면서 제일 흐뭇함을 느끼는

달이 10~11월이다. 우군들이 이동할 수 없는 밭에는 작년까지는 호밀을 심어 6월달에 호밀 사일레지를 담아 조사료가 떨어지는 요즘 8월달에 급여 했었는데 유지율은 높지만 호소성은 떨어졌다.

제조시기도 출수기에 하면 수분이 너무 많아 등겨나 사료를 첨가해도 부패율이 높고 수분함량이 적을 때 하면 초파기로 끊기지도 않고 사일레지를 담은 다음 진압을 잘 해도 압축이 잘 안돼 그것도 부패가 많아 조사료적 가치로 급여되는 것은 2/3정도 밖에 안 되었다.

호밀 후 작물로 옥수수 파종한 것도 봄에 파종한 수확량에 비해 반정도에 그쳐 올해는 봄에 옥수수를 밭 전체에 파종했다. 사일레지